

관동별곡(關東別曲)

정철(鄭澈)

江강湖호애 病병이 기피 竹죽林림의 누엇더니, 關關東동 八팔百백 리니에 方방
面면을 맞디시니, 어와 聖성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 延연秋추門문 드리
드라 慶경會회 南남門문 바라보며, 下하直직고 물너나니 玉옥節절이 앞피 셋
다. 平평丘丘驛역 물을 그라 黑흑水슈로 도라드니, 蟾섬江강은 어디메오, 雉터
岳악이 여기рода. 昭소陽양江강 느린 물이 어드리로 든단 말고. 孤고臣신 去거
國국에 白백髮발도 하도 할샤. 東동洲洲 밤 계오 새와 北북寬寬亭亭의 올라흐
니, 三삼角각山山 第第一일峰봉이 흐마면 뇌리рода. 弓궁王왕 大대闕闕 터희 烏오
鵲작이 지지괴니, 千천古고 興흥亡망을 아는다, 물으는다. 淮회陽양 네 일흠
이 마초아 그틀시고. 汲汲長長孺유 風풍彩彩를 고터 아니 볼 게이고. 營營中中
이 無무事스흐고 時時節절이 三삼月월인 제, 花화川川 시내길히 楓楓岳악으로 버
더 있다. 行행裝裝을 다 썰티고 石석逕徑의 막대디피, 百백川川洞洞 겨티 두고
萬만瀑폭洞洞 드러가니, 銀은 그튼 무지게, 玉옥 그튼 龍龍의 초리, 셋돌며 썸
는 소리 十십리리의 즈자시니, 들은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рода. 金금
剛강臺臺 밧 우層층의 仙仙鶴鶴학이 샷기 치니, 春춘風풍 玉옥笛덕聲聲의 첫즈음
씩뒸던디, 縞호衣의 玄玄裳裳이 半반空공의 소소 쓰니, 西서湖호넷 主主人人을 반
겨셔 남도는 듯. 小小香香爐爐 大대香香爐爐 눈 아래 구버보고, 正정陽陽寺寺
眞眞歇歇臺臺 고터 올라 안즌마리, 廬廬山山 眞眞面면目목이 여기야 다 뇌는다.
어와, 造造化화翁翁이 현스도 현스홀샤. 놀거든 썸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
나. 芙부蓉蓉을 고жат는 듯, 白백玉옥을 못것는 듯, 東동溟溟을 박츠는 듯, 北북
極극을 괴왓는 듯. 呑呑息息고 望望高高臺臺, 외로올샤 穴穴望望峰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千천萬만劫劫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는다. 어와
너여이고, 너그튼니 쏘 잇는가. 開開心心臺臺 고터 올라 衆衆香香城城 바라보
며, 萬만이千천峰봉을 歷歷歷歷히 허여흐니 峰봉마다 밧쳐 잇고 굻마다 서
린 기운, 몹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몹디 마나. 더 기운 흐터 내야 人인傑傑
을 문들고자. 形形容容도 그지업고 體體勢勢도 하도 할샤. 天天地地 삼기실 제
自自然然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有有情情도 有有情情홀샤. 毗비盧盧로
峰봉 上上上上頭頭의 올라 보니 기 뇌신고. 東동山山 泰泰山山이 어느야 놉뒸던
고. 魯魯國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넘거나 넘은 天天下하 엇찌흐야 적
닷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흐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흐거니 느려가
미 고이홀가. 圓圓通通골 그는 길로 獅獅子子峰봉을 츠자가니, 그 알피 너러
바회 化化龍龍되 되여세라. 千천年년 老노龍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셔, 晝晝夜夜
의 흘너 내여 滄창海海에 니어시니, 風風雲雲을 언제 어더 三삼日일雨우를 디
련는다. 陰陰崖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磨磨訶訶衍衍 妙묘吉길詳詳상
雁雁門門문재 너머 디어, 외나모 써근 드리 佛佛頂頂臺臺 올라흐니, 千천尋尋絶絶

벽벽을 半반空공에 세여 두고, 銀은河하水슈 한 구빅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
 마티 플터이셔 퇴마티 거러시니, 圖도經경 열두 구빅, 내 보매는 여러히라.
 李니謫덕仙선 이제 이셔 고타 의논하게 되면, 廬너山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허려니. 山산中중을 미양 보라, 東동海히로 가자스라. 藍남輿너 緩완步보 허
 야 山산映영樓누의 올라 허니, 玲녕瓏농 碧벽溪계와 數수聲성 啼테鳥도는 離니別별
 을 怨원 허는 듯, 旌정旗기를 썰터니 五오色색이 넘노는 듯, 鼓고角각을 셋부
 니 海히雲운이 다 짓는 듯. 鳴명沙사길 니근 물이 醉취仙선을 빗기 시러, 바
 다할 것티 두고 海히棠당花화로 드러가니, 白빅鷗구야 느디 마라, 네 버딘 줄
 었디 아는. 金금闌난窟굴 도라드러 叢총石석亭亭 올라 허니, 白빅玉옥樓누 남은
 기동 다만 내히 셔 잇고야. 工공僮슈의 성녕인가, 鬼귀斧부로 다드문가. 구
 턱야 六육面면은 무어슬 象상뚝던고. 高고城성을란 더만 두고 三삼日일浦포를
 츠자가니, 丹단書서는 宛宛然然 허되 四스仙선은 어디가니. 예 사할 머튼 後후
 의 어디 가 또 머물고 仙선遊유潭담 永영郎郎湖호 거기나가 잇는가. 淸淸澗간
 亭亭 萬만景경臺터 몇 고딕 안뚝던고. 梨니花화는 불셔 디고 접동새 슬피 울
 제, 落낙山산 東동畔반으로 義의相상臺터에 올라 안자, 日日出출을 보리라 밤등
 만 니러 허니, 祥상雲운이 집피는 동, 六육龍龍이 바퇴는 동, 바다히 썰날 제
 는 萬만國국이 일위더니, 天천中중의 티쓰니 毫호髮발을 헤리로다. 아마도 널
 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詩시仙선은 어디 가고 咳히唾타만 나맛느니. 天천地디
 間간 壯장 허 괴별 즈셔히도 홀셔이고. 斜사陽양 峴현山산의 躑躅躑을 으니블
 와 羽우蓋개芝지輪륜이 鏡경浦포로 느려가니, 十십리리 氷빙紈환을 다리고 고타
 다러, 長당松송 울흔 소개 슬크장 퍼더시니, 물결도 자도 잘샤 모래를 헤리
 로다. 孤고舟舟解解纜람 허야 亭亭子子 우히 올라가니, 江강門문橋교 너른 거딕
 大대洋양이 거기로다. 從從容容 허다 이 氣기像상, 濶闊遠遠 허다 더 境境界계, 이
 도곤 마즌 티 쏘 어디잇닷 말고. 紅홍粧장 古古事사를 현스타 허리로다. 江강
 陵능 大대都도護호 風풍俗속이 도홀시고. 節절孝효旌정門문이 골골이 버러시니
 比비屋옥可가封봉이 이제도 잇다홀다. 眞진珠珠館관 竹獨西서樓루 五오十십川천
 느린 물이 太태白빅山산 그림채를 東동海히로 다마 가니, 출하리 漢한江강의
 木목覓觅의 다히고져. 王왕程程이 有有限限 허하고 風풍景경이 못 슬미니, 幽유懷회
 도 하도 할샤, 客客愁수도 둘 디 업다. 仙선槎사를 썩워 내여 斗두牛우로 向向
 허살가, 仙선人인을 츠즈려 丹단穴혈의 머므살가. 天천根근을 못내 보와 望望
 洋양亭亭의 올은말이, 바다 밧근 하늘이니 하늘 밧근 무셔시고. 窅窅 노흔
 고래, 杼杼라셔 놀내관디, 불거니 썩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銀은山산을 것
 거 내여 녹합의 느리는 듯, 五오月월 長당天천의 白빅雪설은 무스일고. 저근
 덧 밤이 드러 風風浪浪이 定定 허거늘, 扶부桑상 咫지尺척의 明明月월을 기다리
 니, 瑞서光광 千천丈丈이 되는 듯 숨는고야. 珠珠簾렴을 고타 것고, 玉玉階계를
 다시 쓸며, 啓계明明星성 듯도록 곳초 안자 버라보니, 白빅蓮蓮花화 허 가지
 를 杼杼라셔 보내시고. 일이 도흔 世세계계 늑대되 다 퇴고져. 流流霞하酒주 마
 득 부어 들드려 무론 말이, 英英雄웅은 어디 가며, 四스仙선은 괴 뉘러니, 아

미나 맛나 보아 넷 괴별 못자 하니, 仙仙山산 東동海海에 갈 길히 머도 멀사.
 松송根근을 베여 누어 풋짐을 얼끗 드니, 惝에 혼 사름이 날드려 닐은 말
 이, 그딴를 내 모르라, 上상界界에 眞진仙仙이라. 黃황庭庭經경 一일字字를 었디
 그릇 닐거 두고, 人人間간의 내려와서 우리를 쏘오는다.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혼 잔 머거 보오. 北북斗斗星성 기우려 滄창海海水水 부어 내여, 저 먹
 고 날 머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和화風풍이 翳습翳습흐야 兩兩腋腋을 추혀 드
 니, 九구萬만리 長당空공에 저기면 놀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四스海海에 고
 로 눈화, 億億萬萬 蒼蒼生生을 다 醉취케 밍근 後후의, 그제야 고터 맛나 쏘 혼
 잔 흐젓고야. 말 디자 鶴鶴을 타고 九구空공의 올라가니, 空空中中 玉玉蕭蕭 소
 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즘을 썩여 바다홀 구버보니, 기피를 모르거니
 ㄹ인들 었디 알리. 明明月월이 千천山山 萬萬落낙의 아니 비천 디 업다.

[송강가사(松江歌辭) 이선본(李選本)]